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 즐거운 골프'를싣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골반 뒤쪽으로 회전되어야

■ 테이크 백 이렇게

자랑스런 전남의 딸 신지애(20·하이마트)가 올 시즌 LPGA 마지막 대회인 ADT 웹피언십대회에서 우승, 상금 1백만달러를 획득하며 상금순위 랭킹 3위(비공식)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신지애는 올 시즌 국내 7개 대회, LPGA 3개 대회에서 우승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를 향해 거대한 아량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함께 플레이했던 선수들은 신지애의 흔들림 없는 샷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고, 뉴욕타임즈 등 언론들도 신지애를 대서특필하며 LPGA의 새로운 여왕 등극에 대한 예상을 내놓았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에 우뚝 선 신지애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 대회 후 인터뷰에서 영어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운동하기에도 벅찬 시간을 쪼개 영어공부를 한 신지애에게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156cm의 골프에 적합하지 않은 체형임에도 강한 임팩트와 정교한 아이언 샷, 컴퓨터 같은 퍼팅으로 약점을 극복한 신지애를 보며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도 골프의 노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연습 없는 실력 향상은 없다. 부단히 연습장을 찾고 자신의 결점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상급골퍼로서 도약하는 비결이다.

이번 주 골프클리닉은 양미애(여·37·광산구 신창동)씨가 찾았다. 골프 입문 1년이 된 양 씨는 90대 후반의 핸디를 보유한 초급 골퍼.

김진철 프로와의 골프클리닉을 기다렸다는 양 씨는 어프로치부터 접경에 들어갔다. 김 프로는 양 씨의 어프로치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안정된 샷을 구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김 프로는 양 씨가 어프로치 어드레스에서 핸드퍼스트가 되지 않아 손목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프로는 어프로치에서는 핸드퍼스트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손목을 사용하게 되고 공을 억지로 펴울리는 스윙이 된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핸드퍼스트 자세는 원풀과 클립이 일정 각도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운스윙에서 클립헤드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원손으로 공을 친다는 기분으로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의 설명을 들은 양 씨는 훨씬 부드럽고 정확한 어프로치를 하게 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프로치가 좋아지자 양 씨는 아이언 샷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평소 7번 아이언으로 100m를 보내는 양 씨의 샷을 보면 김 프로는 코킹이 되지 않아 거리를 손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양 씨가 어드레스에서 원 손목이 자연스럽게 클립과 각도를 이뤄야 하는데 클립과 일직선으로 그립을 잡고 있어 자연스러운 코킹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는 김 프로의 조언대로 어드레스에서 원 손목 각도를 조절하자 테이크 백에서 자연스러운 코킹이 발생하게 됐다.

코킹이 돼지 김 프로는 다운스윙을 할 때 클립헤드로 공을 때리려 덤비지 말고 클립 끝이 리드하는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프로는 이같은 동작을 익히기 위해 하프스윙을 권했다. 풀스윙을 하지 않고 하프스윙을 통해 그립 끝이 리드하는 스윙을 이해하게 된 양 씨는 새로운 골프스윙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프로는 여기에 테이크 백에서 오른쪽 골반이 직선으로 밀리는게 아니라 뒤로 회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을 타격한 후 손목 릴리스를 해줘야하는데 내밀어 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샷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핸드퍼스트가 안된 잘못된 어프로치(왼쪽)와 정확한 핸드퍼스트와 체중이동이 잘된 동작.

김 프로는 코킹과 엉덩이 회전, 릴리스의 3가지 요건을 항상 머리속에 떠올리며 스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드레스에서 머리 위치는 항상 공의 뒤쪽을 응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낮게 돼 역K자 모양의 바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머리 위치가 공보다 왼쪽에 위치하게 되면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크 백에서 몸이 뒤비어지는 역 피봇 현상이 발생해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는 등 스윙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정·지도=김진철 (KPGA 프로)



테이크 백에서 오른쪽 골반이 밀린 잘못된 동작(왼쪽)과 회전이 된 잘된 동작.



머리가 공의 왼쪽에 위치한 잘못된 어드레스(왼쪽)와 공 오른쪽에 위치한 잘된 어드레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남성특보1급기술사랑방이발관	장수추어탕	청호칠학원	생태(춘자)	진성데코빌
새마을회마차 담당군 객사리 새마을금과와 동진병원사이 포장배달전용연회석완비(80석) 대표 차종 삼 ☎(061)382-1624	온성숯불갈비 순천시 장천동 31-8 각종단체 예약환영 최고의 육질과 최고의 맛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061)743-9437	선진공인증개사 남구 진월동 빅마트 뒤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임야, 전월주부, 공, 경매상담 대표 신정자 ☎(062)674-2001	(주)영 서모터스 서구 메월동 종합차동체메단지101동108호 화물차, 승합차, 전자증 소형, 중형, 대형, RV 지프현식무관 수출차량 페차차량 최고가내입 ☎(011)628-0554	결혼정보 광주광역시 협동결혼상담 초혼제혼상단 고소득창출일하는자 혼령 대표 최한주 ☎(062)527-6672	창신상사 광산구 신가동 육교 밀 여성, 남성 성인용품 500여종보유 ☎(010)6533-3279	가마솥추어탕 북구 북구청에서 동강대시아행복수료 기마솥추어탕, 응구메기탕, 숙회, 튀김 포장판매됩니다 ☎(062)431-1661	
향토식당 장성군 영천리 우체국 밀 삼겹살 오리탕 생선조림 닭도리탕, 박민전문 대표 전미옥 ☎(061)393-9000	(주)남양게르마늄(순천본점) 순천시 장천동 옥답우 옆 온열찜질Ệ무료체험, 헬액순환기계, 혈액정화장치 아끼걸림, 허리통증, 출산후 산후조리 등 ☎(061)725-0403	옥천카서비스 남구 진월동 대덕@ 뒷편 정기검사, 타이어교체, 에어컨점검 기타서비스 대표 조종상 ☎(062)676-0316	회평집 남구 영암동 남광주시장 옆은편 학감디리 옆 김치찌개, 문장찌개, 등대찌개, 호박찌개, 흑이무침 제육볶음, 김치조림, 산나지, 각종화무침 ☎(062)671-5531	난천국 남구 병법1동 동시무소 맞은편 나이국 옆 www.nan1009.com 한국자생문화재전문 대표 박성 ☎(062)433-2636	목포활어복집 동구 수가동 서울웨딩홀 건너 활어복 전문점 주차장완비 대표 지정애 ☎(062)223-8549	삼성액자갤러리 북구 중흥동에서 동부시장앞 3거리 세상화자, 광고화자, 사진화자, 표구, 각종액자제작 대표 이성범 ☎(062)526-5260	
싱싱수산식당 순천시장천동 심양주차장 옆 장어전문 도소매 대표 김성우 ☎(061)725-0090	중앙무용학원 순천시 동의동 성동초교정문 앞 화물차, 명품초, 고등학교, 대학, 전시회, 전시회 대표 이란희 ☎(061)752-0907	소리음악학원 북구 두암동 농협3거리 덕산맨션 건너편 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시반 취미반, 수행경기, 바이올린, 비올라, 월정수시모집 ☎(062)523-4763	금강산 북구 종흥동 성우 B/D1층 영광글비정식, 금강산정식, 조기조림,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생태탕, 제육볶음, 생선김, 주물럭전문 ☎(062)527-8592	다온유치원 남구 봉남동 남부경찰서입구 옆 광주온행 옆 유치부 4~7세어린이 수시모집 종일반운영 차량운행 ☎(062)651-0579	남원추어탕 광산구 생암동 생암공원 정문 앞 추어탕(5,000원) 매생이탕, 해물모듬탕 대표 김백현 ☎(062)972-3824	다원모텔 북구 우산동 교정청 뒤 깨끗한모텔 ☎(062)522-8893	